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5~3/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3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5	초기 불교 이해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6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	유선경/홍창성	운주사
7	간추린 한국 선 사상사	정영식	운주사
8	10분 치유 명상 : 문화 치유 명상	송주 김응철	불교신문사
9	수좌 적명 :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의 유고집	적명스님	불광출판사
10	비나야삐따까 : 율장전서	퇴현 전재성	한국빨리성전협회

책세상

"붓다는 무엇을 깨닫고, 가르쳤을까?"



사성제
일묵 스님 지음/불광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성제는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뒤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행한 설법
〈사성제〉, '괴로움 소멸' 위한 초기 수행 가이드… 붓다 근본 가르침
현학적인 언어를 배제하고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사성제 뜻을 정리

25년 전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출신의 10여 명이 동시에 출가해 화제를 모은 일이 있다. 그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일묵 스님. 이 책은 당시 서울대 수학과 박사 과정 중에 출가한 스님이 7년 만에 펴낸 신간이다.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친 스님은 새의 양 날개처럼 교학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완벽한 수행법을 '사성제(四聖諦)'서 찾으며 연구에 매달려 왔다. '사성제'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붓다의 수행과 깨달음의 핵심 내용인 사성제를 단독 주제로 한 대중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초기불교 경전 니까야를 중심으로 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는 사성제가 단순한 '이론 체계' '사상'이 아닌 삶과 수행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가르침'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교리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사성제가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집중해, 사성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바른 견해이자 바른 수행법이며, 깨달아야 할 진리임을 밝힌다. 이 책은 문자에 갇힌 불법(佛法)이 아닌, 내 삶과 수행의 기준으로 삼는 생생한 불교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불교 교과서'가 되어 준다.

우리는 지금껏 사성제를 잘 모르고 있었다. '사성제(四聖諦).' '고(苦) 집(集) 멸(滅) 도(道)'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뒤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행한 설법이다. 이 책에서는 사성제를 붓다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사성제가 오늘날 많은 불교 전통, 이를테면 남방 상좌부불교, 북방 대승불교, 선불교, 티베트 불교 등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불교사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도 불교가 오랫동안 여러 지역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변화해 왔지만 사성제가 붓다의 근본 가르침이자 핵심이란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토록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왜 단순한 개념 정도로만 암기하고 있을까? 네 글자, 한 줄 정도로 요약된 개념을 외우기만 하면 사성제를 터득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붓다의 가르침의 기본은 '괴로움에 대한 통찰'서 시작된다. 사성제란 무엇인가? 바로 '이 세계는 괴로움(苦)이며, 괴로움의 원인(集)은 욕망이고, 괴로움을 소멸(滅)하기 위한 길(道)'에 대한 가르침이다. 압축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라 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이 불교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는 붓다의 수행 여정을 살펴보자.

붓다는 생로병사의 근원적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가한 이후 줄곧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관점을 견지했다. '나는 이전도 지금도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을 천명할 뿐이다.'(〈아누다라 경〉) 붓다의 이 말 속에는 제자들에게 설한 다양한 가르침이 실은 사성제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설한 것임을 뜻한다. 상수 제자 사리뿟다는 '불교의 유익한 법들은 모두 사성제에 내포된다.'(〈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라고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괴로움의 소멸(행복)'이다. 그것은 붓다가 우리에게 법을 전한 이유이며, 붓다가 전한 가르침의 전부이자 궁극이다. 즉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성제를 통한 삶의 괴로움에 대한 통찰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며, 괴로움에 대한 바른 통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성제는 매우 심오한 가르침이기에 사성제를 혼자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불교 경전은 그 양과 내용이 방대하다. 자칫 가르침의 핵심을 짚어 줄 스승이나 지침서 없이 경전을 읽게 되면, 그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만다.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서인 아비담마를 통해서 사성제를 이해하는 데도 다소 문제가 있다. 아비담마는 부파불교 시대에 각 부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법(佛法)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과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논서이므로 실제 수행의 지침서라기보다 논리적인 완결성을 추구하는 현학적인 이론 체계에 가깝다. 그래서 아비담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추상적인 관념에 빠져 현실에서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실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수행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사성제는 단순한 이론 체계나 사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붓다가 몸소 체득한 진리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로서 불교 수행의 올바른 방향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 방법까지 드러내는 심오한 가르침으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사성제는 불교 교리의 차원을 넘어 수행의 관점으로 접근한 논의를 찾기 어려웠다. 저자는 이 점에 주목했다. 사성제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현학적인 언어를 배제,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사성제의 뜻을 정리했으며, 읽는 순간 내 삶과 수행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데 진력했다.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자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집필 기준이다.

불교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 종교,

사성제는 '실천적 가르침'이다.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이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교리와 수행을 분리하는 데 있다. 사성제를 개념 정도로 외우는 데 그치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불법의 지혜를 쌓아도 사성제와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당연히 사성제가 가리키는 올바른 방향을 자신의 삶과 수행에 연결하지 못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고, 집, 멸, 도의 단순한 뜻풀이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실천적 가르침'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붓다는 사성제를 깨달으며 번뇌를 버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했다. 붓다는 평생 이 가르침을 전하며 '너희도 나처럼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붓다의 말처럼 우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을 통찰하고 번뇌를 소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쳐 주고자 한 깨달음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데 있다. 삶의 모든 것을 사성제에 따라 이해하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이어 가고, 정진하고, 기억하고, 삼매를 계발함으로써 번뇌를 버리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독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했으면 하는 저자 일묵 스님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번잡함 가운데 책 한 페이지 읽기도 만만치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탁한 세상에도 깨달음을 위한 길이 있다면 이 한 권의 책을 공부하는 게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은 불법을 자기 삶과 수행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불교 교과서'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먼저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반으로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사성제 각각의 진정한 의미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각각의 지점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할 법(法), 나아가 사성제가 삶과 수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준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간다.

사성제 단독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분량은 만만치 않다. 가장 분석적이라고 알려진 초기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아우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겁내지 마시라. 이 책은 그러한 고리의 핵심을 꿰뚫는 체계적인 구성과 대중적인 해설, 적절하고 풍부한 경전 인용으로 사성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알기 쉬운 내용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서론에서는 붓다의 수행 일대기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된 사건에 주목한다. 이는 붓다의 수행 방향과 견해의 전환점으로서 바른 수행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에서는 사성제를 이해하여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본다. 그런 사람은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은 열심히 닦는다.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저자 **일묵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서 원택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고 봉암사, 미얀마 파욱국제명상센터, 영국 아마라와띠, 프랑스 플럼빌리지 등 국내와 세계 불교 수행처서 수행했다. 2009년 서울에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따와나선원을 개원했고, 2018년 강원도 춘천에 수행 도량을 마련하여 이전했다. 현재 춘천 제따와나선원의 선원장으로 머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저서로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스님이 들려주는 초기불교 윤회 이야기〉 등이 있다.



붓다가 최초로 발견한 명상의 본래 모습,
사마타(定)와 위빠사나(觀)의 세계!

이제, '명상은 수행'이라는 본래 목적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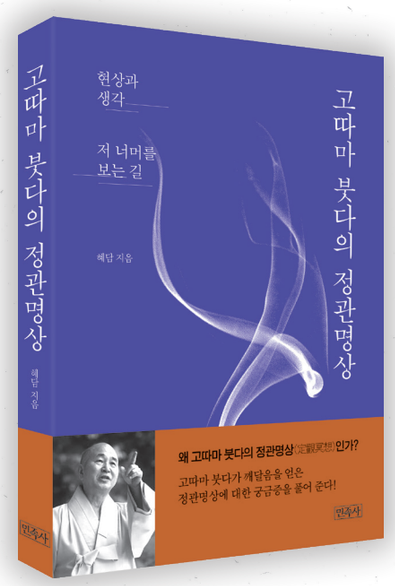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고따마 붓다의 정관명상

혜담 스님 지음 | 254쪽 | 값 13,800원

삶의 근본적 변화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자 명상!
누구나 명상으로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처방전!

우리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수행은 출가 수행자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요즈음 수행이라는 이름 아래 명상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명상이 '명상은 수행이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머리말 중에서



혜담 스님 | 부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업.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제방선원에서 참선 수행.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소청심사위원·호법부장·재심호계위원 역임. 〈불교신문〉 논설위원·〈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깨달음의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다. 역저서로 《대품반야경(상·하)》 《新 반야심경 강의》 《방거사 어록 강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진리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민족사 40년 전통, 불서 출판의 명가 www.minjoksa.org 02)732-2403~4